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중단 경험: 현상학적 연구

정남해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due to COVID19 : Phenomenological Study

Nam-Hae Jung
Di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요약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추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작업치료학과 학생 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전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실습 중 경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은 Colaizzi(1978) 자료 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17개의 주제, 6개의 주제모음, 2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다. 주제모음은 무관심기, 문제인식기, 방황기, 대처기, 후유기, 대처에 대한 기대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실습 중단 과정에서는 불안감, 아쉬움 등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학교가 동시에 일괄적이고 빠른 대처를 시행하기를 기대하였다. 추후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임상기관, 협회 및 학교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통 및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where their practice was discontinued due to COVID-19,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measures. This study was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ven students. Interview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an interview, it was organized into 17 themes, six themes clusters, and two categories. The themes clusters were indifference, problem recognition, wandering, coping, aftermath, and anticipation for coping. The students experienced a confused and frustrating situation after recognizing the problem of COVID-19 and experienced anxiety and regret as they experienced the interruption of their fieldwork. The students expected all universities to implement a batch and quick response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a systematic communication and delivery system is needed to quickly prepare and implement countermeasures at the same time as institutions, associations, and universities.

Keywords : COVID19, Fieldwork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Phenomenological Research,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작업치료사는 정신, 신체, 발달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치료하며, 일상생활과 직업, 교육, 놀이 등의 환경 내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업치료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

임상실습은 작업치료 전공학생들에게 학문적 교육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실습 교육자의 지도하에서 적극적으로 실행 및 통합하고 임상기술을 발달시켜 학생에서 전문적인 작업치료사로 발전하도록 돕는다[2-3]. 학생들이 임상실습 때 경험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임상실습 교육자의 역할 수행 정도는 졸업 후, 본인이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의 작업치료사 역할 인식과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임상실습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내적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에 2월 대구신천지교회, 구로구 콜센터, 5월 이태원 클럽 등의 집단 감염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2020년 7월까지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6].

Shin[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의료계가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의대, 간호대, 기타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실습 기회가 제한되어 미래 의료 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함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언론에서는 실습시간을 채워야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간호조무사, 위험에 노출된 의대생 등 실습생들의 위험에 대한 보고가 터져 나오면서 감염사태 시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실습경험의 제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실습 중이었던 혹은 실습예정이었던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도 실습이 중단되거나 실습이 취소 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 3차 유행을 예측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난과 감염은 더 빠른 주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현재

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학생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추후 대책 마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고의성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임상실습 중이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임상실습이 중단된 자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총 7명의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이 참여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P1	P2	P3	P4	P5	P6	P7
Sex	F	F	M	M	M	F	F
Age	23	23	25	25	26	23	23
Grade	3	3	3	3	3	3	3
Pre-experience of fieldwork practice	0	1	1	0	1	1	1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6주간 연구 대상자와 전화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편의에 맞추어 조용히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고, 1시간~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녹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 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파일을 여러 번 들으면서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우리지역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4)
 일단은 실습은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실습지가 떨어져서 ...
 관리만 잘되면 실습은 걱정없었는데.... (참여자 5)

3.1.2 문제인식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더욱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무관심을 지나, 문제 인식기에 접어들었다.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언론보도와 더불어 실습기관의 방역대책, 환자 수 감소, 임상 선생님들의 조언, 타학교의 실습 중단 등을 통해서 위협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저랑 같은 병원 실습을 한 다른 학교는 실습을 먼저 중단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겠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참여자 2)

점차 외래 환자분들이 못 오게 되었고 아동작업치료실에 아동 방문 빈도도 낮아지면서 피부로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1)

병원에서 코로나 1월 중순 즈음부터는 중앙입구를 폐쇄하고 밖에 조그만 입구만 오픈해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 이름 적고 열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서로 좀 환자들이나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서로서로가 가까이 안 붙으려고 하는 걸 지키려는 게 보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5)

3.1.3 방향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협에 대해 인식 한 이후, 학교 혹은 실습기관에서 실습 중단 결정이 있기까지 학생들은 방향기를 경험하였다. 학교를 떠나 낯선 실습지에 와서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가족들의 걱정, 격려 등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반면, 직접 교수에게 연락해 문의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다. 다른 학교가 먼저 실습을 중단하고 간 경우, 부러움 및 의욕 상실을 느끼면서 본인들의 학교의 늦은 대처에 대한 걱정 및 답답함을 느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모두 불안감 및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부러움, 걱정, 답답함 의욕 상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다른 학교 실습생이 먼저 중단하고 갔을 때) 그때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5)

(실습을 먼저 중단한) 학교 대처가 엄청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4)

Table 3. Categorization of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the fieldwork practice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Effects of COVID19	Indifference period	Unaware of the seriousness I'm safe'
	Problem recognition period	Hospital taking preventive measures
		Reduction of the patients
		Supervisor's comment
	Wandering period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of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y
Envy of other school students to stop fieldwork practice		
Worry about late coping		
Coping period	Personal effort	
	Frustrating	
	Anxiety	
Aftermath period	Regret	
	Relief	
Expectation	Expectation of future action	Economic loss
		This was the best
Expectation	Expectation of future action	Expectation of rapid coping
		Necessity of preparing a collective, simultaneous, and quick countermeasure

교수님께 우리는 중단 안 하나 여쭙보려고 전화 했었어요. 그때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실습하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지하철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7)

(다음 실습을 위해서) 주말에 방을 구하러 갔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이 안 나서 방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막상 방을 안 구했는데 중단된다는 말은 없고 불안했던 거죠. 그때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교수님들께 따로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3)

3.1.4 대처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실습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이었다. 실습이 중단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가하면, 반대로 아쉬움, 불안감, 걱정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실습을 가야 하는데 그때는 또 언제 가야 되나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6)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께) 제가 남아서 실습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실습을 중단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여자 1)

그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딱 중단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건 있었어요. 당장에 좀 실 수 있겠구나. (참여자 3)

3.1.5 후유기

실습 중단으로 실습 중 경험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해소되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습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실습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등의 문제가 생겼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 이후에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 당장은 학생인 신분이니 가장 많은 의지 한 것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처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1차, 2차, 3차가 모두 타지역이라) 실습을 위해서 처음 집을 계약할 때 기간을 6개월로 했었는데 (실습 중단 때 문에) 1개월 반만 잡고 내려 오다보니 집 계약금도 다 돌려받지도 못하는 등 마음이 좀 심란했었습니다. (참여자 4)

3.2 기대

3.2.1 추후 대처에 대한 기대

연구 대상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습 중단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습 중단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습 중단의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일괄적으로 해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해서도 통일화하여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실습 중단 시기를 차라리 다같이 통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중단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학생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우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협할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주시고 빠르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5)

4.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의료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실습의 어려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2, 3차 코로나가 유행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간 합의와 배려가 중요하며[7],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작업치료 임상실습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무관심한 시기를 거쳐 위험에 대해 인식하면서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신종 감염병 발생은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혼란 및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를 초래한다[10].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기를 경험하였다. 사람들은 감염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한다[11].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험을 인식한 후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Lee, Kim & Kang [12]에서도 잘 드러났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일반인들은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해 대처할 수 없을 때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외출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실습을 하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처를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듯이, 실습생들은 학교나 실습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3]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안내'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습 전 확인 사항은 주로 교육기관에서 판단하고, 현장실습 진행 여부 및 방식은 실습 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중단한 경우, 실습 의료기관에서 중단한 경우, 학생 부모가 중단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지침 전달의 문제였던 것이다. 대책 및 전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방황기와 대처기를 거치면서 실습이 중단되었는데, 실습 중단되는 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안함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본인의 실습 중단이

늦어지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먼저 실습을 중단하는 걸 본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빠른 대처에 대한 부러움, 자신들의 학교의 늦은 대처에 대한 걱정 및 답답함을 호소한 반면, 실습이 상대적으로 먼저 중단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실습 중단에 대한 아쉬움 또는 추후 실습에 대한 걱정 등 마찬가지로 불안과 혼란을 호소하였다. 추후 대처에 대한 기대에 관한 주제모음에서 학생들은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서 최대한 빠르게, 동시에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였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 이후에도 실습을 대비하여 준비해 두었던 숙소 예약 파기 등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였고, 실습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였다. 신종감염병과 같은 감염성 사회재난이 다시 발생했을 때, 지금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 대학(교) 뿐만 아니라 임상기관, 관련 협회에서 소통하고 협업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 및 대책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습 혼란 및 중단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이해하고 추후 대책 마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무관심기, 문제인식기, 방황기, 대처기, 후유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습 중단을 경험하면서 시기와 상관없이 혼란을 느꼈으며,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 대처에 대한 기대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서 동시적이고 일괄적이며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사태를 대비하여 실습 의뢰기관 및 전국의 작업치료(학)과 대학(교), 관련 협회에서 소통 및 협업하여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M. Kim, M. J. Lee, J. S. Lee, T. Y. Lee, D. H. Kang, et al. "The survey of occupational therapy curriculum for the standards of education program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2, No. 2, pp. 119-126, 2004.
- [2] D. M. Costa. *The Essential Guide to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Education*, p. 576, Bethesda, MD: AOTA Press, 2004.
- [3] I. M. Provident, K. Joyce-Gaguzis, "Creating an occupational therapy level II fieldwork experience in a county jail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59, No. 1, pp. 101-106, 2005. DOI: <https://doi.org/10.5014/ajot.59.1.101>
- [4] J. K. Kim, S. Y. Park, T. Y. Lee, D. H. Kang,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2, No. 1, pp. 69-82, 2004.
- [5] Wikipedia. Corona 19 pandemic, 2020. Available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B%A1%9C%EB%82%9819%EB%B2%94%EC%9C%A0%ED%96%89> (accessed Jul., 11, 2020)
- [6] Wkipedia. Korea's Corona19 pandemic, 2020. Available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D%94%EB%A1%9C%EB%82%9819_%EB%B2%94%EC%9C%A0%ED%96%89 (accessed Jul, 11, 2020)
- [7] J. W. Shin, Social efforts to recover and recover the medical community following coronavirus infection-19 [Interne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80. [cited 2020, April 20], Available From: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84&ano=1
- [8] F. U.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gist Views, in R. S. Valle, M. King,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39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8-71,
- [9]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 [10] J. T. Lau, S. Griffiths, K. C. Choi, H. Y. Tsui, "Avoidance behaviors and negative psychological response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the H1N1 pandemic in Hong Kong" *Emerging Infect Disease*, Vol. 10, No. 139, 2010. DOI: <https://doi.org/10.1186/1471-2334-10-139>
- [11] J. K. Stearns. "Infectious ideas: contagion in premodern Islamic and Christian thought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1, p. 304.

- [12] D. H. Lee, J. Y. Kim, H. S. Kang.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s(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5, No2, pp. 35, 2016.
- [13] Central Accident Remediation Headquarters for the New Coronal Virus Infection. Safety management for on-site trainees of new coronavirus infection medical institutions, 2020, Available From: <https://www.kaim.or.kr/bbs/index.html?code=corona&category=&gubun=&page=1&number=12014&mode=view&keyfield=&key> (accessed Jun, 10, 2020)
-

정 남 해(Nam-Hae Jung)

[정회원]



- 2013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 석사)
- 2017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이학 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작업치료, 아동 작업치료, 보조공학